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사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경건치 못한 죄

(말라기 1:6-14)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종들이 경건해지면 백성들이 따라서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해지면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이 불성실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권태스럽게 여길 것이고 코웃음을 치며 토색하고 도적질한 물건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쳤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2. 백성을 해롭게 하는 제사장

희생 제물을 바치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세상도 하나님을 천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경건해지면 백성들이 따라서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해지면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이 불성실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권태스럽게 여길 것이고 코웃음을 치며 토색하고 도적질한 물건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쳤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악을 행하느냐”(롬 2:17 이하)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직분을 멸시하는 제사장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와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12절).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역, 말씀, 사명을 멸시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멸시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직분을 귀히 여기며 충성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4.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장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6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10절).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서도 가증하게 제물을 바치겠다고 오는 사람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자, 바른 제사장, 바른 일꾼이 되어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제사장의 죄를 고발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후로는 만민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목회자나 지도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제단에 거저 것 바치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속이는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이어 말라기 2장은 회개를 촉구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 올 당시 경건한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 목사가 계시었습니다. 그 분은 목사의 자격을 일반 성도들의 신앙 기준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목회자는 매우 높은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과 강도 높은 교회 훈련 받은 사람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목사가 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일 뿐 아니라 비극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지도자의 죄입니다. 직분이야 어떻든 우리 모두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지도자라면 우리는 모두 중간 지도자입니다. 독일의 본 회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씨구려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값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너무 싸구려로 생각합니다.

말라기서를 읽으며 경건하지 못한 길로 간 지도자들은 크게 회개 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 했더라면 이스라엘에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오히려 정당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서양의 격언에 “빠뜨려진 동지에 바른 말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비유한 말입니다.

1. 잘못된 제물을 바친 제사장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1:7).

그들은 눈 먼 희생제물, 저는 것, 눈 먼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고 합니다. 인간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자기도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사 빌리 그레햄이 독일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성결케 하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하면서 타락한 목사와 거저된 예배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햄이 지적한 타락한 목사는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경건생활이 결여된 사람, 언행심사가 바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사회적 관심이 적거나 혹은 아주 없는 사람, 전도할 의사가 결여된 사람을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관계가 바르지 못하여 분열하고 대립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제물, 곧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희생의 제물은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2005년 1월1일 0시 본당에서

다사다난 했던 2004년도도 어느덧 영원한 과거로 묻히고 다시금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준비하는 새해가 성큼 다가왔다.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한 지금,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앞으로 나와 참 평화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교회는 송구영신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12월 31일 밤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촌극대회를 열어 각 부서별로 5~7분 정도의 촌극을 발표한다.

촌극대회가 끝나면 11시 30분 본당을 소등하고 빛 되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회개와 새로운 결심의 시간을 갖는다.

0시 정각, 촛불을 켜는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될 신년 0시 예배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기쁨이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11시 30분 이전에 본당에 입장을 마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한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신년감사 헌금도 드리게 된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교회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번 달 3일 선포된 새번역 주기도·사도신경을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부터 사용하게 되는 일이다.

모든 성도가 회개와 감사로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도록 기도한다.

감사와 승리로 마무리하는 2004년

오늘 졸업감사예배, 권사 은퇴식, 장로안식년 가져

200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교회는 다양한 행사로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다.

먼저 각 교회학교에서는 졸업감사 예배를 드리고 졸업생들을 삼급 교회학교로 환송하며 찬양예배 시간에는 권사 은퇴식 및 장로안식년 행사를 갖는다.

고후덕 최금례 한금희 권사 세 분은 평생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시고 교회 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이 정한 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다. 이 분

들은 서울교회 은퇴 권사로, 살롬 권사회 회원으로 기도에 더욱 전념하시게 된다. 또한 오늘 당회의 허락을 받아 2005년 1년 간 안식년을 맞게 되는 장로들은 왕경래 하영수 노승성 박두호 장로 네 분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교회를 통해 이루신 수많은 사역들을 감사하며 국가와 세계 교회를 위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토록 세우신 서울교회가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05년 청지기수련회

1월3일(월)-9일(주) 1주일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될 청지기 수련회가 오는 2005년 1월3일(월)부터 1주일 동안 열린다.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에 열리며 강

의는 요일마다 정해진 담당 교역자가 진행한다. 청지기 수련회는 새벽기도를 마친 후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구분	1. 3(월)	1. 4(화)	1. 5(수)	1. 6(목)	1. 7(금)	1. 8(토)	1. 9(주일)
5:00-5:30	특별새벽기도회 (강사: 교육담당 목사)						청지기 헌신예배
	윤영국 목사	김운호 목사	이규정 목사	오정식 목사	이성득 목사	한상은 목사	
5:40-6:20	윤영국 목사	김운호 목사	이규정 목사	오정식 목사	이성득 목사	오정수 장로	(찬양예배)
	예배위원의 역할과 자세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	전도와 선교를 통한 교외부흥	교구일꾼의 역할	섬김을 통한 교회봉사	부서의 재정 운영과 실재	
대상	예배위원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선교위원 전도위원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치량, 식당, 직원	각 부 부장, 대장, 외장, 학감 및 회계	청지기 전원

2005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일정 안내

12월31일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005년 순결서약식을 준비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이 12월 31일 오후 7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금번 순결서약식에 참가신청을 한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은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분	시간	담당	장소
예 배	7:00-7:30	한상은 목사	101호
오리엔테이션	7:30-7:40	김운호 목사	101호
순결비디오 상영	7:40-8:10	김운호 목사	101호
교육	학부모	이용식 목사	101호
	초중고	윤영국 목사	501호
	대청부	서명철 목사	104호
기 도 회	9:00-9:30	교육담당 목사	교육장소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기쁨

찬양예배 시간에 후반기 전도상 시상식 주간성경공부 수료식 가져

전도위원회는 지난 주까지 등록한 후반기 교인을 593명(전도 435명, 본인 158명)으로 집계하였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61명은 70인 전도대가 전도한 성도들이다. 하반기에 5명 이상 전도한 30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교회는 이런 성과가 지난 6개월동안 교회인근 지역에 대한 70인 전도대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전도활동과 일반 성도들의 전도역할 실천에 따라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로 평가하고 하반기 전도상시상식을 찬양예배시간에 갖기로 하였다. 전도학교는 지난 해부터 주일전도학교를 이론과 실습을 겸해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전도역량을 가진 이들을 발굴하여 70인 전도대에서 활동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팀의 기도 속에서 가까호 호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수요일과 토요일에도 오후와 야간에 전도를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토요일 야간은 대학부가 중심이 되어 복음을 부르며 학생 및 젊은이 대상으로 활발하게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올 일년 동안 매 주일 마다 성경을 읽으며 주간 성경공부를 한 성도들이 수료하는 시간도 찬양예배 시간에 함께 갖는다.

-전도수상자 명단-

- 96명 박이선집사(김옥,이현주,임명숙)
- 87명 심명숙집사(김영희,임인선,이선희,이명순)
- 10명 김은순집사(진선자권사)
- 9명 최미아권사(이판도권사)/김혜영권사/임옥균집사
- 8명 최성희집사(이현주집사)
- 7명 이인숙권사(서경선집사)/김동진집사(김미성집사)/장정화권사(이창희집사)/안미경집사(김영화집사)/김정애집사
- 6명 오정수장로/정동학집사/박정임집사
- 5명 이복규장로

-주간성경공부 수료자 명단-

- 1교구: 김정애 박미영 박원옥 박원영 서경선 서경애 서중화 송미영 안명덕 안정배 양미숙 여유현 이명아 이인숙 임옥근 최태경 현기옥 홍순복 홍일성
- 2교구: 김경희 오재이 이은선 이자혁 최규조 최난수 최무순 최형열
- 3교구: 교후덕 김유정 이경구
- 4교구: 김복녀 김혜경 박민숙 이승민 정경자 홍광숙
- 5교구: 김중근 남옥진 류후자 박창희 박수남 성준경 안창휘 윤용근 이광열 이윤영 이은희 임선철 정봉금 최근자 최학인 최혜순
- 6교구: 김경옥 김희진 박정수 장양일 최경애 최민준 한금희 허인숙
- 7교구: 김영준 배영애 윤은식 이태원 임순자 정연택 함은희
- 8교구: 김연정 김현주 여현진 이영자 임윤자 채택희
- 9교구: 강정옥 김진숙 송옥혜 유 신 이부자 조상희 지성철 최정숙 최정자 한옥순
- 10교구: 박은순 윤찬오 이영희
- 11교구: 곽 숙 김양숙 김영우 백영희 이옥희 이흥기 전배호 조옥섬 조정옥
- 12교구: 김건중 김형택 남정영 박명석 서희숙 여옥기 이은희 임상현 정희순 황정옥
- 13교구: 김신애 김은태 노현자 안연희 이경구 이순복 이순창 최미경 최성옥 탄금희
- 14교구: 김인순 김종자 박수옥 박종숙 박진희 신미선 유기찬 정명숙 정찬주 최낙준 최옥희 황선영 황현진



지난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순례자 편입부가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또 순례자가 하나님나라의 귀한 소식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4 서울교회 10

1. 주기도, 사도신경 재번역 확정

한국교계의 양대 기구인 한기총과 KNCC의 전문위원 62명이 지난 12월 3일 우리교회에 모여 주기도, 사도신경을 확정 선포했다. 대표적인 교계 기관들이 공동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하기는 한국교회 120년의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회 이종운 목사는 이 일을 위해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주기도, 사도신경 재번역을 현의했다. 올해 들어 한기총과 KNCC는 올해 각각 전문위원회와 특별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직을 두 기관 모두 이종운 목사에게 맡기고 재번역을 추진토록 했고, 이종운 목사와 이들 전문위원의 토론과 연구 끝에 새번역 주기도와 사도신경이 탄생한 것이다. 새 주기도와 사도신경은 송구영신 예배부터 우리교회가 최초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독교 TV와 교계 신문사들이 올해 10대 뉴스 중 하나로 뽑았다.



▶ 위원들이 감사함으로 주기도·사도신경을 합의 통과시키고 있다.



▶ 주기도·사도신경 새번역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다.

2. 서울교회 3대 비전 제시

우리교회는 설립 13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더욱 큰 발자국을 내딛기를 기도하며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 오는 2010년까지 해외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 둘째, 교회학교 학생 일 만 명 이상 출석, 셋째, 사회복지 센터 설립을 통한 빈약한 자구제 앞장 등이다.

3. 군 선교 약진



▶ 군 선교 영역 확장 - 3사단에서 진중세례식을 집례하다.

교회와 비전2020 운동본부는 군에 입대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준선교사로 양성시키기로 하고 각 분기별로 입대 예정자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케 한 뒤, 입대 전 예배 때 파송식을 갖고 준선교사 임명장을 수여해 복음전파의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또 이들을 위해 월례 중보기도회를 열어 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9월 14일에 열린 세계기독교군인대회에 이종운 목사가 직접 강사로 나섰고, 3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또 육사교회와는 선교후원 결연을 맺기로 하면서 앞으로 육사교회와 협력하여 비전2020운동을 진행하고 육사 진중세례식 등 각종행사를 주관하게 됐다. 해마다 군종목사 후보생 수련회를 우리교회가 전적 지원하는 일과 지난 5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환송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이들의 월동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군 선교를 위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한 해였다.

4. 공산권 선교 교두보



▶ 연립신학교 제1기 졸업생 배출하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오던 우리교회는 특히 올해 북한동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일을 진행했다. 연초부터 교회학교 산하에 탈북자들을 위한 디아스포라반을 개강했고, 탈북 동포들의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방문해 이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북한 용연역 열차폭발사고가 나자 교회는 구제헌금 전액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 보내 동포들을 돕는데 사용토록 했다. 3년 전 동아시아 모 지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신학교를 개설한 뒤, 지난 6월에 11명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우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 공산권에서 신학생이 배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한 김치 신학세미나를 통해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공산국가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확산시켰다.

5. '섬기는 교회' 모습 부각



▶ 구제위원회 주몽재활원 방문

설립 당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교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가 목적이었던 우리교회는 올해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섬김을 실천했다.

대치동 교회협의회를 조직하여 매일 목회자들 모임을 주선하고, 교회 인근 각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른들을 초빙해 경로잔치를 열었으며, 7월에는 의료선교회가 조직돼 매 주일 교회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추석 때는 구제위원회와 사랑부 교사들이 주축이 돼 이웃사랑 바자회를 통해 거둔 수익금으로 나자로의 집과 주몽재활원 등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6. 새 예배당 헌당일정 확정

지난 2000년 성탄절에 새 예배당으로 입당한 우리 교회는 계속된 질적, 양적 성장에 힘입어 예배당 헌당일자를 확정했다. 교회는 설립 14주년이 되는 내년 11월 27일에 헌당식을 갖기로 하고 교회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12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간에 마지막 건축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대 NEWS

7. 이종운 목사, 한국교회 10대 설교가로 선정

통한 전도를 하고자 화요정오음악회를 열었다. 화요정오 음악회는 올해 봄과 가을 한 달어씩 매주 화요일에 열렸고, 심사를 통해 뽑힌 연주자들이 오르간 독주나 실내악 연주회를 열면서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서울교회로 다가갈 수 있었다.



▶ 한국의 10대 설교가로 선정된 이종운 목사

한국교회사학연구원(원장 민경배)과 한국기독교사학회가 주최하는 "한국교회 10대 설교가 연구"를 하면서 10대 설교가 가운데 서울교회 이종운 목사를 선정했다. 올해의 연구대상 설교가로 이종운 목사가 선정되면서 지난 10월 25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는 이종운 목사의 신학과 설교에 대한 연구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연구 발표에는 연세대 대학원장 서중석 박사와 김세광 서울장신대 교수, 고신대 교회사학과 이상규 박사 등이 나서 이 목사의 신학과 설교에 대해 한국교회 설교와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정표라고 평가했으며 대신 신학교 총장 문성모 박사의 총평이 있었다.

8. 화요정오 음악회 운영

지난해 말 파이프 오르간을 하나님께 봉헌한 뒤 교회는 오르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 등에게 오르간 선율을



9. 북중미 지역 설교방송

보다 폭 넓은 선교활동을 위해 우리 교회는 북중미 지역에도 이종운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부터 CTS 기독교 TV에서 KISB 제 3채널을 통해 북중미 지역에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 전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중미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한국에서와 동일하게 방송설교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를 위한 목회자 금식성회가 우리교회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목회자 3천여 명이 모여 나라의 위급함을 놓고 눈물로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금식성회에서 목회자들은 기도로 시작한 제헌국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매년 5월 마지막 주일 국가를 위한 기도주일로 정하기로 하는 등 다섯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민철(편집부)

10. 위기의 조국을 위한 헌신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 총대들은 지난 9월 제 89회 총회에서 나라의 현실이 비상시국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시국성명서 초안위원회를 전격 구성해 그 위원장에 서울교회 이종운 목사를 선출했다. 이종운 목사는 즉시 성명서를 작성해 총회에 상정했고 1500명 총대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기립하여 우리와 같은 박수로 통과시켰다. 총회가 시국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72년 유신헌법 반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였다.

3.1절에 우리교회에서는 공산독재종식과 민족복음화

▶ 2004년 3월 1일 위기의 조국을 위하여 모인 전국의 교역자들



지난 한 해 감사합니다

이성득 목사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회자로써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믿음의 순례 여정을 함께 달려온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7,8교구 식구들, 목회세미나 봉사자 여러분, 순례자 편집부원들, 멀티미디어 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규정 목사

1년을 하루같이 곁에서 붙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미려한 종을 이해와 사랑의 기도로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가까이에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 오신 1,2교구 식구들, 아름다운 신혼가정부 교사들과 회원들, 깨끗한 믿음의 귀염동이 유치부 친구들과 교사들, 무엇보다 전도에 맘을 흘린 70인전 도대원들과 전도, 선교위원회 일꾼들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김은호 목사

부족한 저희 교역자들을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이중운 목사님, 동고동락하는 동료 교역자들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3, 4교구 식구들,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신 성도님들, 묵묵히 장년부를 지켜주신 선생님들, 교육위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기쁨이 솟아 납니다. 그래서 저절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새해에도 이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윤영국 목사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한 한 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하신 모

든 서울교회 지체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겸손과 순종의 씨를 심은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13,14교구 식구들, 중등부 모든 청지기들에게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믿고, 멋지게 섬기고,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2005년도가 기대됩니다.

한상은 목사

올 한 해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 12교구 식구들을 비롯해 소요리문답부, 스테반회, 비전 2020, 주부대학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정식 목사

서울교회 온 성도분들이 감사하지만 특히 5, 6교구 식구들을 떠올릴 때면 제 얼굴 가득 미소가 번집니다. 또 헌신적인 교구위원회 장로님과 간사님들의 수고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매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6층을 오르며 기도와 눈물을 함께 했던 고등부 교사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신 어린이 찬양예배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신 상담부 여러분,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용식 목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 한 해였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부서를 맡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땀흘린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한 9, 10교구 식구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부 선생님들, 음지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차량안내원들, 온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온 식당봉사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잘 되는 축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영 전도사

저에게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소중합니다. 한 마디 불평 없이 조용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 해주신 분들, 일일이 그 이름을 나열할 수 없음이 유감스럽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사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샬롬!

임규현 목사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4년도! 어려운 경제와 수많은 숙제를 남기고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에바다부를 향한 서울교회 모든 분들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태훈 목사

서울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깊은 사귀어 있었던 2004년이었습니다. 따스한 성도님들의 사랑 속에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박광일 전도사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 교역자로 부임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긴 한 해였지만 새해에는 정말 아름다운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들기를 힘쓰겠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농어촌100교회후원현황

번호	교회명	목회자(목/전)	후원자
44	송정교회	김지철(목)	교구간사회
45	한국농사랑회	김상기	교역자회
46	하늘교회	권영복(목)	김권집,왕경애
47	충도교회	이춘자(전)	김금준
48	보길교회	이명기(전)	김대호,남순덕
49	장금교회	윤영석(목)	김사무엘,정경월
50	시산교회	김창수(목)	김성준,김선영
51	신덕교회	장영식(목)	김영빈,배방이
52	신암교회A	오진근(목)	김형신,현기욱
53	하림교회	안국강(전)	노영숙
54	새순교회	정채현(목)	도르가여전도회
55	충성교회	차덕희(목)	루디아여전도회
56	평화교회	조용표(목)	루디아여전도회
57	돌한동교회	황성배(전)	모세남선교회
58	벤엘교회B	안윤선(목)	모세남선교회
59	중흥교회	박윤계(목)	바울남선교회
60	진사교회	김학근(목)	바울남선교회
61	현동교회	이춘길(목)	바울남선교회
62	후석교회	홍중기(목)	박길수
63	평화의집	김영환(목)	박두호
64	춘양농어인교회	이종순(전)	박순옥
65	지하철선교회	유장진(목)	박정임
66	사촌교회	손봉안(목)	배드로남선교회
67	살롬교회	김석호(목)	사라여전도회
68	모레교회	황인숙(전)	사라여전도회
69	도안소망교회	우상두(목)	사라여전도회
70	주 소망교회	오준석(전)	사랑의회
71	신암교회B	한재숙(전)	손영호,경은숙
72	연천한사랑교회	임재용(전)	손혜인,손호세아
73	진영온누리교회	최한권(목)	순례자
74	월평성광교회	강용태(전)	스데반회
75	김포미래교회	조철환(목)	스데반회
76	이작영락교회	강상기(전)	스데반회
77	주왕산교회	이희구(전)	스데반회
78	소망도교회	박의자(전)	스데반회
79	영광장수교회	김광의(전)	신선주
80	로근한교회	고재복(목)	신종건,김희진
81	삼막제일교회	김수호(전)	아브라함남선교회
82	서거차중앙교회	김우오(목)	안드레남선교회
83	원주농어인교회	김희동(목)	안인호,이명신
84	반석교회	정관섭(전)	양춘경,이인숙
85	선하교회	이규성(목)	에스더여전도회
86	선한목자교회	박도삼(목)	에스더여전도회
87	성광교회	강내봉(목)	에스더여전도회
88	신월교회	안근기(목)	오수영,장정원
89	참빛교회	김상수(목)	오유식,이봉규
90	이인교회	정석관(목)	오형철,신동기
91	만평교회	신진영(목)	원용범
92	금평교회	경두진(전)	윤봉준,김명화
93	주하교회	황현숙(전)	윤석배/이원희
94	학리교회	박실곤(목)	임광식
95	오곡새순교회	최낙범(목)	임민철
96	하늘문교회	김평기(목)	장명순
97	한정협	석사현	전기섭,원영애
98	행암교회	박용자(전)	전기섭,원영애
99	우도교회	송봉호(목)	정인주
100	저동교회	김춘환(목)	조명준

-다음주일에 계속-

만민에게 전도-전도학교를 마치고

직장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김병용 집사(6교구, 전도학교 11기)



60이 넘는 나이임에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직장에서 업무

관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이 든 저에게 직장을 주신 것을 믿고

저의 생각과 지식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은 돌짜 밭에 뿌려놓은 결과였습니다.

저의 전도 방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교회 전도학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새로운 전도방법을 배워야겠다는 의욕을 품고 전도학교 11기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입교 첫날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큰 감명을 받았고, 25명 입교생들 각자가 앞으로 전도 활동계획과 포부를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

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전도학교에서 배운 12주 과정의 교재를 하루 밤을 새우며 모두 읽었습니다. 저는 좀 더 일찍 전도학교에 입학하였더라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을 터인데 뒤늦게 입학하게 된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습

니다. 그후부터 저는 직장에 한 시간 일찍 출근하여 전도학교에서 배운 대로 직장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주일 후 새로운 경리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마침 개포동에 거주하는 42세의 가정주부로부터 전화가 왔습

니다. 개포동은 서울교회에 근거리인 동네이기 때문에 나에게 매우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이력서를 검토해보니 사무직 근무경력이 많고, 전산처리능력도 수준급이었으나, 우리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업무는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채용한지 이틀 후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전도학교에서 배운 대로 서울교회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긍정적으로 받더니 다음 주일에 서울교회에 한번 출석해 보겠다고 말하기에 순례자 한 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두 달 전에 자기 집 우편함에 끼여 있는 순례자를 본 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반가워하였습니다.

그 후 주일 2부 예배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고 경리직원은 주일 2부 예배에 참석을 하였고 교회 주보내용도 검토해보고 설교도 들어보니 은혜 받았다고 하며 오늘은 혼자 왔으나 다음주일에 딸(대학부) 큰 아들(고등부) 둘째아들(중등부)을 데리고 출석하여 등록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자녀 3명도 서울교회에 등록하여 지금 교회출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교회 등록 기념으로 중고이지만 자전거 2대를 마련해 주었더니 무척 기뻐하며 교회 출석할 때에 타고 온다고 합니다.

이들 가족이 서울교회에서 믿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있으며,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파악하여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옥토에서 새싹이 돋고 튼튼히 자라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학교 과정을 이수하여 전도의 권능과 도전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어둠 가운데서 해매는 불쌍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회부흥과 민족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리라 다짐합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0일(목) 한국신약학회 학술발표회 및 송년 모임에서 개최설교를 한다.
- 개업: 김계영 집사(11교구) Dr. Qi 관 완각구 신림1동 1597-1호 T. 857-8938
- 주간식당봉사: 엘리아남선교회(12.26) 모세남선교회(1.2)
- 금주의 식사: 장영일 집사·정정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 KB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4-주일 저녁 9시5분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 3 희망찬 새해를 믿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